

현대건설, 차세대 원전사업 로드맵 시동... K원전으로 글로벌 1위 도약한다

대형원전·SMR·원전해체 등 원전사업 전방위 확대 ... 파트너십 맺고 영역 확장·글로벌 진출 속도

현대건설이 원자력발전 사업 영역을 전 분야로 확장하는 '차세대 원전사업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대 원전 건설 실적과 수출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자력 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한국형 대형원전 34기 중 22기 시공 경험을 갖추며 대형원전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5월 24일, 원자력 사업 분야 최고 기업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협약(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미국형 대형원전(AP1000모델) 사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차세대 원전사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과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약(Team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올 3월에는 홀텍과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 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원전해체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연구기관과도 꾸준한 협력으로 차세대 원전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비경수로형 SMR 개발 ▶경수로형 SMR 시공 기술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원전사업 다각화와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을 가속화해 탄소 중립 실현과 원자력 생태계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준 사장은 "국내외 최고의 원전사업 선진사들과 협력해 총체적인 원자력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대건설만의 창의와 도전의 DNA로 글로벌 1위의 '원전 토탈 솔루션 프라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 도약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Hyundai E&C is forging stronger collaboration with global leading companies to expand its nuclear power plant business into the entire sector including small modular reactors (SMR), nuclear reactor decommissioning and spent nuclear fuel treatment. Korea's primary builder signed a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 on May 24 with the U.S.-based nuclear power generation giant Westinghouse, laying the foundation for tapping into the global nuclear market to participate in AP1000 plant opportunitie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Hyundai E&C signed a teaming agreement with U.S.-based Holtec International at the end of last year to jointly develop and promote the SMR business. Earlier in March, Korea's foremost builder entered the US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market for the first time among domestic companies by signing a contract for the decommissioning of the closed Indian Point Energy Center with the supplier of nuclear equipment and services.



현대건설의 글로벌 원전사업 추진 현황

대형원전 약 800조원

국내 기업 최초, 미국형 대형원전사업(웨스팅하우스) 전략적 협업

원전해체 약 135조원

국내 기업 최초 미국 원전해체(홀텍사 소유 인디안포인트) 사업 진출

사용후핵연료시설 약 60조원

미국 홀텍사와 임시 저장시설 전략적 협업

소형모듈원전(SMR) 약 640조원

미국 홀텍사와 160MW급 SMR 개발 및 시공사업 협약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에너지경제연구원자료참고
각 사업별 시장규모 2035년 누적 전망치



1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의 미국형 대형원전(AP1000모델) 글로벌 사업 협력 체결식, 2 현대건설이 홀텍과 함께 개발 중인 SMR-160모델 조감도 예시.

Our company to build Korea’s first water electrolysis-based production base

One ton of hydrogen to be produced per day

Our company has been selected for the water electrolysis-based hydrogen production project promo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ntributing to creating a hydrogen society.

Our company created a consortium with the local governments of Jeollabuk-do and Buan-gun, Jeonbuk Technopark and Techcross Water & Energy. The consortium will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capable of producing, stor-

ing and transporting more than one ton of hydrogen on a daily basis. The project is designed to construct the country’s largest commercial clean hydrogen production base within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Complex located in Jeollabuk-do, and the construction is slated to be completed in May 2024.

Our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basic and detailed designs of the hydrogen production base involving water electrolysis facilities and ship-

ping and electrical lead-in facilities; the construction of such facilities; and the procurement of key materials.

So-called clean hydrogen emits no or a significantly small amount of carbon dioxide during the hydrogen production process. Water electrolysis is a process of using electricity to decompose water into oxygen and hydrogen at a large scale, which is garnering attention as a key technology in producing clean hydrogen.



현대건설, 전북 부안에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세운다

2.5MW 수소 하루 1t 규모 생산 ... 지역 수소 충전소 보급 및 상용화 예정

우리 회사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수소사회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테크로스 워터에너지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하루 1t 이상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조성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

대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수소 충전소 등과 연계해 수소 모빌리티에 활용된다. 우리 회사는 수전해 설비와 출하 및 전기인입 설비 등을 포함한 수소 생산기지의 ▶기본·상세 설계 ▶주요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맡았다.

청정수소란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배출하는 수소를 일컫는다. 수전

해 기술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수소를 대규모 생산하는 것으로, 청정 수소 생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누적 1800조원으로 전망되는 ‘2030년 글로벌 수전해 수소 생산플랜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GW급 대규모 수전해 수소플랜트의 기본설계 ▶원자력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등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기술연구원은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가 미래 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새로운 기회라는 판단 아래 수전해 기반의 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수소 저장·운송 분야 핵심 기술 ▶기본설계 역량 강화 등에 매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초기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수소산업을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수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며 “수소사회의 퍼스트 무버로서 친환경

미래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탄소 중립 대응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이행을 향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스마트기술 토대의 건설 프로세스 구축으로 국내외 현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Orders for urban renewal projects reaching all-time high

Our company is about to enter seven-trillion-won club in 1H

Our company posted record-high cumulative orders three years in a row with the amount of orders receiv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exceeding that of the cumulative orders for the previous year.

Our company has obtained the deal to redevelop Yimun Zone 4 in Yimun and Hwigyeong New Town, Seoul,

on June 18, driving up the cumulative orders for this year’s domestic urban renewal projects to reach 5.6988 trillion won. This remarkable figure is almost four times higher compared to 1.2919 trillion won over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Our company is the only builder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that set unparalleled records in urban renewal projects as the cumulative orders for this sector has reached five trillion won. This achievement is attributable to efforts to diversify our business, hire experts specialized in urban renewal and suggest customized designs and business conditions through thorough market analysis.



도시정비사업 3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 ... 상반기 ‘7조 클럽’ 달성 앞뒀

이문4구역 재개발 수주하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 5조6988억원 달성

우리 회사의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으며 ‘3년 연속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위업을 조기에 달성했다.

우리 회사는 6월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내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조698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

액인 1조2919억원과 비교하면 4배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성과다.

우리 회사는 올 초부터 ▶대구 봉덕1동 우리재개발 ▶이촌 강촌 리모델링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강동 선사현대 리모델링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 ▶대전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연달아 수주하며 내

실있는 포트폴리오를 쌓아왔다. 6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리모델링 ▶부산 서곡사6구역 재개발 사업의 수주에 성공할 경우 상반기 ‘7조 클럽’ 달성은 물론 4년 연속 업계 1위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는 현재 건설사 중 유일하게 누적 수주 5조원을 돌파하는 등 도

시정비사업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사업 다각화를 비롯해 도시 정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총원, 치밀한 시장분석 등에 따른 결과다. 우리 회사는 주요 광역시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한 사업지를 선별해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경쟁사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과감한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사업지들을 선별적으로 수주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에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지들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업계 최초로 도시 정비 수주실적 4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orea’s first large-scale dioxin-contaminated soil purification completed

Our company successfully purified dioxin-contaminated soil at a large scal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ur company completed the project aimed at purifying 11,031 square meters of dioxin-contaminated area at Camp Market, an installation of the US Army in Incheon, in two years and 11 months. The project was con-

ducted in the middle of the densely populated residential district, which raised concerns over construction noise, safety-related issues, and release of dioxin from its purification process. To safely and effectively treat dioxin, classified as a class one carcinogen, our company used the in-pile thermal desorption (IPTD) and the thermal oxidation process.

국내 최초 대규모 다이옥신 오염 토양 완전 정화



다이옥신 오염 토양 열탈착시설



다이옥신 추출가스 열산화시설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대규모 다이옥신 오염 토양을 완전 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우리 회사는 최근 인천 부평에 위치한 미군 시설 프로세스 구축으로 국내외 현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부평 캠프마켓 정화사업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사 소음과 안전문제는 물론 정화 과정에서 다이옥신 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있었다. 우리 회사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IPTD: In-Pile Thermal Desorption)’과 ‘열산화공정(Thermal Oxidation)’을 사용했다.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토양으로부터 분리해 정화하는 것으로, 정화과정 중에 다이옥신 분진 및 증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작은 친환경 공법이다. 우리 회사는 오염도량의 다이옥신 농도를 정화목표로 했던 100피코그램(1조분의 1g)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고온 반활기지 ‘캘프마켓’의 1만1031㎡에 대한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사업을 2년11개월 만에

Embarking on development of CO2 capture and liquefaction technologies

Our company has been selected as the lea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a national project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n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The project is aimed to optimize and demonstrate a hybrid CO2 capture and liquefaction method for “blue hydrogen” pro-

duction. The purpose of the project l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capturing and utilizing process of over 100 tons of CO2 on a daily basis.

Our company will focus on developing low-energy technology capable of capturing and liquefying CO2 at a purity rate of over 95 percent with a 90-percent recovery rate.

블루수소 생산 위한 CO2 포집·액화 기술 개발 착수

우리 회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분야 국책과제의 주관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식 CO2 포집 액화공정의 최적화 및 실증’ 과제는 총 연구비 335억원 규모(정부지원개발비 195억원)로 하루 100t 이상의 CO2를 포집·활용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33개월간의 과제 종료 후 상업 운영을 계획 중인 산업연계형 연구



로되던 국내 블루수소 생산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중·소규모 소각로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분석), 롯데케미칼(분리막 포집기술) 등 12개 기관도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 다.

이번 과제는 세 가지 포집공정(습식, 분리막, VSA(Vacuum Swing Adsorption))에 ‘하이브리드형 CO2 포집·액화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회수를 90%, 순도 95% 이상의 저에너지 CO2 포집, 액화 기술 개발은 물론 세계 수준의 기술 확보와 국산화가 목표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블루수소 생산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중·소규모 소각로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에이치 갤러리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시상식 성료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디에이치(DIEH) 홍보관인 ‘디에이치 갤러리’가 압구정동 거주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디에이치 갤러리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했다.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집’을 주제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작품 접수를 진행한 이번 미술대회에는 인근 초등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335점의 그림이 출품됐다. 우리 회사 임직원 50여 명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3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9명, 장려상 21명, 입상 41명 등 총 8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한편 5월 28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컬처파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우리 회사 김태균 주택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수상자 및 가족 2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시상식은 마술공연,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부상으로 대상 50만원 등 총 925만원 규모의 문화상품권이 상장과 함께 수여됐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미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 디에이치 지하 공간 디자인 개발

고품격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DIEH)가 지하공간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우리 회사는 ‘TIMELESS’를 디자인 콘셉트로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에 맞는 디에이치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건축사사무소 ‘서아키텍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디에이치 지하공간의 디자인 테마는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한 요소를 덜어내는 ‘EXTRACT(덜어내다) ▶지하 주차공간을 이루는 구조체를 드러내는 ‘EXPOSE(드러내다) ▶표현의 간결함을 원칙으로 하는



‘SIMPLIFY(간결함)’로 구성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파트 차량 진출입 공간부터 램프, 차량 통로, 주차구획에 이르기까지 입주민의 시선이 닿는 포인트를 세심하게 고려해 디에이치만의 컬러사인 등 특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우리 회사가 6월 17일 서울 계동 사옥에서 ‘승강기 분야 품질 안전 향상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승강기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임지홍 건축주택

기술실장을 비롯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의원 안전관리이사, 이한수 기술사업처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양사는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 등을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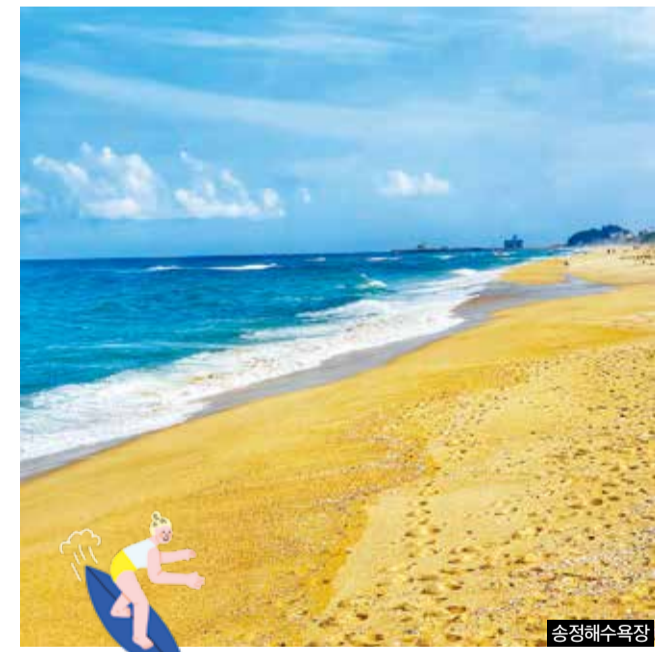
MOU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 향상 및 품질 제고 ▶사회적 책임 ESG경영 실천을 위한 승강기 탄소 저감 제품 적용 ▶승강기 분야 중대재해 ZERO 실현 ▶승강기 설치 후 품질 안전진단을 통한 민원 발생 요인 선제적 대응 ▶적부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 등에 대한 유익적인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우 추천, 어디어디! “나의 최애 여름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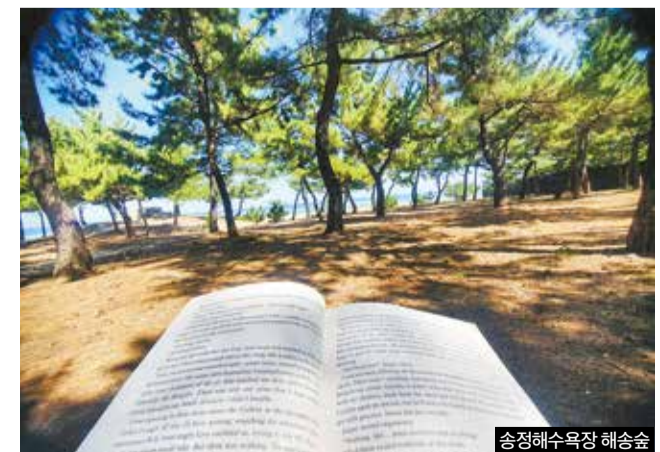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 발리 & 강릉 송정해수욕장

해외여행을 생각하면 발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발리의 푸르름을 만끽하고 있으면 평소 바쁘게만 흐르던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내 여행지 중에는 강릉의 송정해수욕장이 제일 좋았어요. 아름다운 바다는 물론 산책하며 책 읽기 좋은 소나무 숲까지! 그야말로 'Perfect Combo'입니다. 힐링이 필요할 때, 여유 가득한 여행지로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엘레나 매니저(카타르 도하지사)**



송정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해송숲



푸른 동해바다를 한눈에, 가슴이 탁 트이는 최고의 장소
포항 곤륜산

바다와 하늘,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곤륜산을 추천합니다. 곤륜산 정상에 서면 답답했던 마음이 뽕 뚫리는 것 같아 포항을 찾는 지인들에게 꼭 소개하는 저의 힐링장소예요. 얼마 전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배경으로 나와 인기가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바다 빛깔에 눈을 뗄 수가 없는 이곳, 포항 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둘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박성환 매니저(일스테이트 포항)**



일몰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곳
거제 계룡산

바다를 즐기기 위해 거제도를 찾는 사람이 많죠, 산에 오르면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 정상에서 보는 일몰이 그 주인공이에요. 산의 높이가 566m라 등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량으로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거나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계룡산의 정취를 느끼며 편히 정상에 도달할 수 있어 크게 힘들지 않아요.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과 광활한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철중 책임매니저(플랜트사업기획실)**

무더운 바람에 땅방울이 맺힐 때, 반복되는 일상이 살짝 지루하게 느껴질 때 “아~ 떠나고 싶다!”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울여름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고민된다면 이 페이지에 집중해 주세요! ‘금손’ 사우들이 보내준 작품 같은 사진 속에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행의 감동을 말끔히 애스에 줄 ‘사우 추천 여름 여행지’로 출발~! 글·정리=이진우



‘여행’ 하면 떠오르는 일찍 플레이스
쿠바 아바나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 회항을 겪으며 어렵게 도착한 쿠바.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은 24시간이 넘는 비행의 피로를 말끔히 날려주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형형색색의 울드카와 낡았지만 힙한 건물들이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았거든요. 친절한 사람을 많이 만난 덕에 더욱 즐겁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너무나 저렴한 물가와 무엇보다 라이브 음악을 배경으로 카리브 해변에서 마시는 모히토 한 잔이 최고였답니다. “모히토에서 쿠바 한 잔, 추천합니다~!” **김슬기 연구원(미래사업연구실)**



한여름에도 상쾌한 피톤치드를 가득 머금고 싶다면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해수욕보다 산림욕을 선호한다면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추천합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길게 늘어선 길을 걸을 땀 더운 여름에도 상쾌함이 느껴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피톤치드가 가득 충전되는 기분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가면 좋은 장소입니다. **최원정 매니저(검단~경명로간 도로신설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건설공사)**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 노을 맛집인 거 아셨나요
제주 차귀도

산 좋고, 바다 좋고,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 유명한 제주. 여행 일정이 모자랄 정도로 아름다운 스폿이 많은 섬이지만, 남실대는 바다와 어우러진 붉은 노을은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붉은빛이 세상을 뒤덮는 풍광을 마주하면 ‘천혜의 자연’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테니까요. **이상철 책임연구원(미래사업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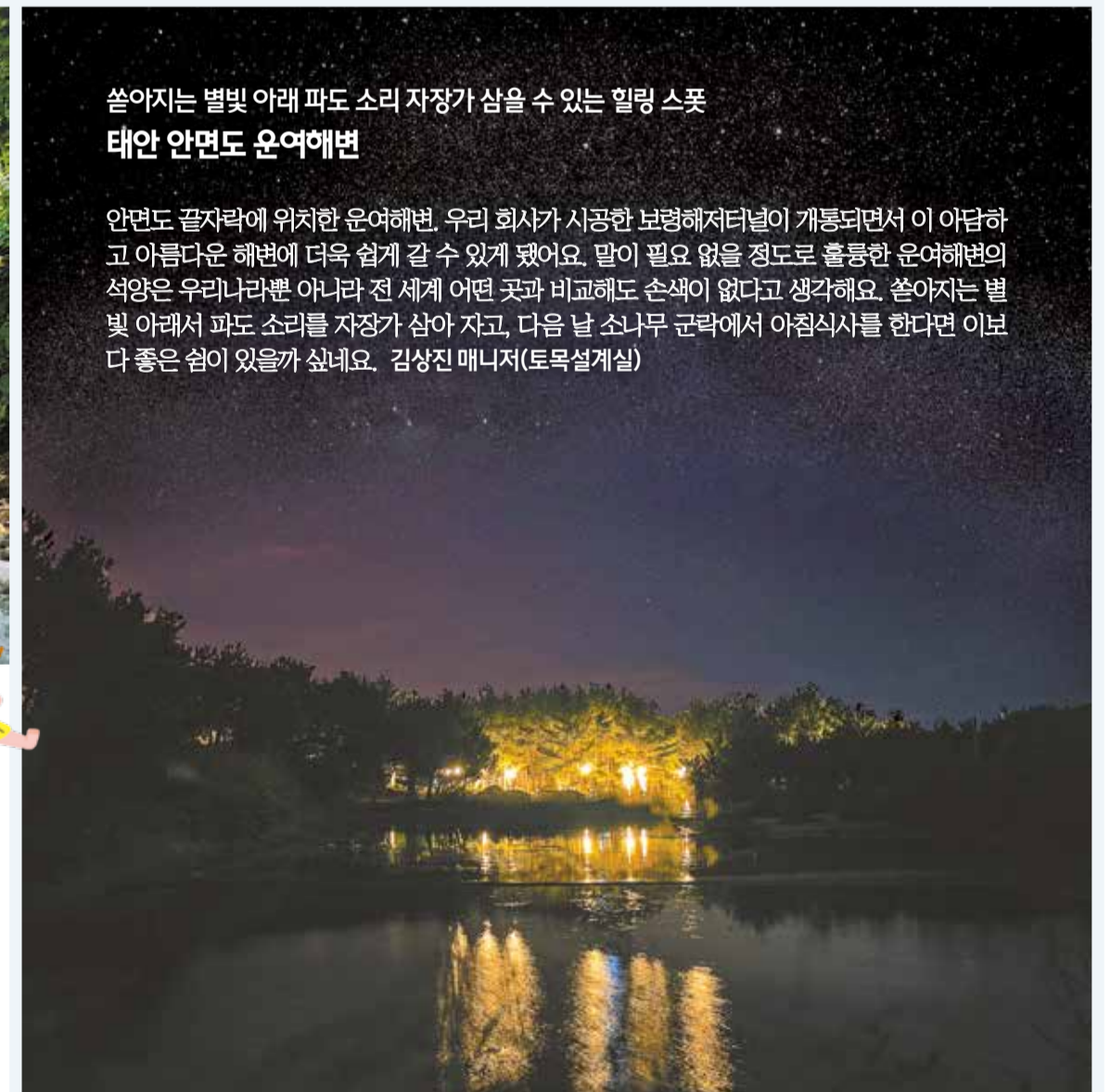
쏟아지는 별빛 아래 파도 소리 자정까지 삼을 수 있는 힐링 스폿
태안 안면도 운여해변

안면도 끝자락에 위치한 운여해변. 우리 회사가 사공한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면서 이 아름다운 해변에 더욱 쉽게 갈 수 있게 됐어요. 말미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운여해변의 석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파도 소리를 자정까지 삼아 자고, 다음 날 소나무 군락에서 아침식사를 한다면 이보다 좋은 섬이 있을까 싶네요. **김상진 매니저(토목설계실)**



시원하다 못해 즐기까지 한 계곡에서 무더위 타파
평창 흥정계곡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생가가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흥정계곡을 소개합니다. 바람과 계곡물도 시원하고, 울창한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줘 한참 물놀이하고 싶 땀면 시원하다 못해 즐기 느껴져요. 계곡을 따라 20~30km 더 들어가면 오토캠핑장과 펜션도 있어요. 이효석 생가 옆이나 봉평전통시장에서 맛있는 메밀요리를 먹고, 근처에서 메밀닭강정을 포장해 물놀이 중간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박현우 책임매니저(일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현장

마천루에서 바라보는 오션뷰 ... 부산 서구 스카이라인이 달라졌다

현장탐방 부산시 서구의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최고 높이 256m의 초고층 빌딩이자 1368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5월 24일 완공한 것. 이전까지 서구의 최고층 아파트가 30층, 600여 세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이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분양 '원룸'을 기록하고, 최근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현장 돌보기. 글=박현외 / 현장 리포터=최시은 매니저

비치 프런트 아파트... 와이드한 오션뷰가 일품

부산 영도구와 서구를 잇는 남항대교에 진입하면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눈앞에 펼쳐진다. 여타 건물들과 대조되는 초고층 빌딩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곳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센텀시티, 마린시티, 메트로시타에 이은 부산의 또 하나 랜드마크다. 현장은 부산 4대 매립지 중 마지막 개발지역인 송도 매립지(부산시 서구 양남동 123-15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최고 69층 규모의 주거시설 3개동과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1개 동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2017년 12월 착공해 54개월 만인 지난 5월 24일 준공했다.

지역의 관문이자 상징인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온전히 감상하는 방법은 송도 해상케이블카를 타거나, 남항대교에서 서구 방향으로 드라이브하며 전경을 조망하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최고 높이 256m의 압도적인 규모임에도, 주변과 어우러지는 블루 계열의 커튼월이 경제하면서도 탁 트인 풍경을 선사한다"고 소개했다. 멀리서 우뚝 솟은 건물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경관에 비할 수는 없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송도 앞바다를 품은 비치 프런트(Beach-Front) 아파트로 오션뷰가 일품이다.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파노라마 오션뷰와 시티뷰가 펼쳐져 낮에는 송도해수욕장의 C커브를, 저녁에는 해상케이블카의 불빛과 도시의 야경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급 조경도 선보였다. 단지 곳곳에는 'Stories of Hope'를 주제로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주거동 진입부의 엔트런스 서클(Entrance Circle)과 전용 주차의 '나래'는 현장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역동적이면서도 웅장하다. 이 외에 김문규의 '생-에너지', 안재국의 '세포유희', 심준철의 'Body of Noise' 등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이 있어 마치 야외 갤러리에 방문한 것 같다.

지상부 상업시설 구간의 중앙광장(Blue Wave Plaza)에는 유기적인 형태의 수경시설과 대형 소나무, 제주 팬나무 등이 배치돼 있다. 필로티와 연결되는 고즈넉한 산책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옥토너 놀이터, 사시사철 꽃을 즐길 수 있는 휴게 정원은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거주자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린다. 특히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 테라스에서는 이국적인 소파와 선베드가 있어 휴양지의 리조트에 온 듯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최고 256m 초고층 건물, 안전·품질까지 완벽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답게 부산에는 높게 솟은 고층 건물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부산시 서구에는 이렇다 할 건축물이 없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의 높이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이 이유다. 현장은 지상 69층 1개 동, 59층 2개 동으로 최고 높이가 256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이다. 더욱이 바다에 인접해 있어 일반 아파트 현장과는 다른 공사

방법이 필요했다.

건물이 높아지면 바람이나 지진 등 옆에서 밀는 힘(수평하중)에 취약해진다. 특히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현장 특성상 바람하중(바람과 물체가 부딪혔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 현장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초고층 건축을 위해 '아웃리거-벨트월(Outrigger Beltwall)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웃리거(Outrigger: 건물의 코어와 외부 기둥을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한 지지대) 방식의 핵심 부재인 벨트월은 건물에 힘이 가해질 때 단단하게 받쳐주는 하리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데 중추적이다. 현장은 고강도 철근콘크리트(RC-Reinforced Concrete)로 만든 최고 두께 90cm의 코어월(Core Wall: 건물 핵심 벽체)과 최고 두께 1.3m의 핀월(Fin Wall: 날개 형상의 벽체)을 건물 중심부에 배치했다. 이렇게 세운 코어월과 핀월을 아웃리거 방식으로 외부 기둥에 연결시켰다. 벨트월은 A동 2개 층, B·C동 1개 층에 삽입했다. 벨트월이 설치된 층은 층고가 특히 높고 건물 입면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중앙 기둥실 및 피난구역으로도 활용된다.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천루를 쌓아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주 작은 오차라도 누적돼 지면과 수직이 이탈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은 전문 측량업체와 협업해 'GPS 계측 시스템'을 적용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수직도를 계산한 덕분에 허용 오차가 2cm 이내인 정도로 정밀 시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주택 명가, 부산 송도 부흥 이끌 것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단 하루의 지연 없이 적기에 준공한 현장이다. 완벽한 공정관리가 가능했던 데는 지하층과 지상층을 동시에 공사하는 '톱다운(Top-down) 공법'이 있다. 이 공법은 지표면에서 지하층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상 1층에 슬래브를 시공한 후 지하와 지상 구조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로, 다른 시공법에 비해 주변 지반과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현장은 리스크 없는 공사를 위해 본사, 협력사, 구조 컨설팅사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또 터파기 및 철골 공사 등 작업 간섭에 따른 공기 지연을 막고자 1년여간 본사 3D BIM 모델링 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더불어 건물의 안전성과 위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을 이용해 건물의 구조를 세세하게 살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프로젝트는 바닷가에 인접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1.8m의 가설 옹벽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또 게이트 4개소에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바닷물 유입을 막는 '컨테이너 물막이 공법(가칭)'을 적용했다. 2017년 12월 착공한 현장은 ▶2018년 6월 지하층 흙막이 공사와 지하층 외벽 공사 ▶2018년 8월 지하층 기둥 철골 매립 공사 ▶2021년 7월 지상층 철근콘크리트 공사 ▶2022년 3월 내부 마감공사 ▶4월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5월 부대 공사 및 조경 공사를 거쳐 준공 다음 날인 5월 25일 입주를 시작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부산에서도 알짜배기 입지로 손꼽힌다. 인근에 송림공원-거북섬-스카이워크-천마산 등이 있으며 숲과 절벽이 어우러진 압남공원도 생활권 내에 있다. 쾌적한 교통 환경도 장점이다. 남항대교를 기점으로 부산항대교-광안대교까지 한 번에 이어져 부산역-부산항-해운대-백석고 등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서쪽 방면으로는 천마산터널을 통해 서부산권 및 감해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준공한 지 한 달, 지역 주민들은 해운대의 부촌 이미지를 마린시티-센텀시티가 구축한 것처럼 송도의 발전을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가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주처와 언론 역시 '부산 서구 최고층 랜드마크'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있다. 실제로 힐스테이트 고객 게시판에는 현장에 대한 칭찬 글이 150여 건 접수됐을 정도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우리 회사 서로서로는 부산 서구의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현장 직원들은 "초고층 건물을 '중대재해 제로'로 준공한 만큼 자부심이 남다르다"며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가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이름을 빛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1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의 '아웃리거-벨트월' 시스템. 아웃리거 방식의 핵심 부재인 벨트월을 통해 외부 기둥과 코어월을 연결하면 수평하중이 가해질 때 건물을 단단히 받칠 수 있다. 2,3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조경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4 준공을 기념하며 현장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mini interview
"부산 서구의 첫 힐스테이트 준공... 자부심으로 가득하죠"

- **최근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사업지원팀 최준호 팀장(이하 최) 안녕하십니까. 현장에는 2017년 11월 부임해 55개월간 근무 중인 최준호 책임입니다. 부산 서구의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를 시작부터 창산까지 지켜볼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 **품질관리팀 고창희 팀장(이하 고) 품질관리팀장으로 2018년 7월 부임해 최근까지 터파기, 골조 및 마감공사 등을 수행했습니다. 최근 제주 JW 메리어트 리조트 본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부임했는데요. 저 역시 대부분의 공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 **사업지원팀 서준호 매니저(이하 서) 입사 후 첫 현장인데요. 두 베테랑 선배님과 함께 인 터뷰를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23개월간 풀린 땅이 부산 서구의 랜드마크로 건설되어 왔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최 우리 현장을 통해 초고층 건축에 대한 데이터를 또 하나 쌓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주해 나갈 초고층 프로젝트에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고 부산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대건설이 지은 비치 프런트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응이 무척 뜨겁거든요.

● **일반 아파트 공사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 건면 톱다운 공법 등 까다로운 공정으로 현장 초기에는 공사 진척이 더뎠습니다. 부족한 공기를 만회하고자 전 직원이 돌관(喫丸)으로 움직였고, 단 1일의 공기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서 초고층 건물이다 보니 자체 운반 및 작업 이동이 특히 어려웠어요. 협력사 소장들과 매일 회의를 하며 날씨에 의한 호이스트 운행, 협력사 자체 운반, 작업자 이동 등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웠고 덕분에 중대재해 없이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 시스템 거푸집, 옥탑 철골 시공, 자체 및 인력 운반 등 초고층 건축에 필요한 각종 기술 요소를 실패 없이 수행한 것은 전 직원의 노고 덕분입니다. 현장 직원들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사를 했던 기억이 아찔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 **프로젝트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최 원가 상성에 대응하여 공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설계 변경 협상을 준비했던 점입니다. 디테일한 설계 변경 계획 수립과 협상에 원가 개선을 이뤄낸 점은 현장 관리 면에서 매우 훌륭한 성과물이라고 자부합니다. 소장님, 사업지원팀 등 현장 전 직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서 개인적으로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현장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현장 전 직원과 협력사 소장들이 모여 매주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이를 본 근로자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 지면에 모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은 현장입니다(대웃음). 입주민들의 만족감이 높다는 피드백을 얻었었고요. 그만큼 행복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직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ZOOM IN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3H' 특화 설계 엿보기

<p>HEALING 안전, 안심 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fe Drop of Zone 천장고 2400mm 충간소음 완화 	<p>HUB 공유, 친목 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청고 게스트 하우스 어린이 놀이터 	<p>HIGHTECH 첨단시스템 특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오티 (Hi-ot)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스마트 주차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친화형 주택 인증 유해물질 흡착 분해 벽지 미세먼지 저감 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조망 휴게 라운지 무인택배 보관함 지열 및 빗물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지원 스위치 스마트폰 키시스템 전세대 LED 등기구



사막 한가운데 미래 신도시가? 극한 환경에서 더욱 주목받는 스마트시티

ESG 칼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스마트시티의 일차적 목표는 에너지, 교통, 건물 등의 체계를 개선해 도시의 기능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특히 사막도시나 해양도시인 경우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극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 사례를 모아보았다. 글=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 / 사진 제공=텔로사, 오셔널스 시티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미국의 사막 스마트화

사막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갈증이 난다. 그래서인지 사막으로 유명한 나라 대부분이 오아시스와 같은 물줄기를 따라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이런 사막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들려온다. 사막에 새로운 미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탄소를 뿜어내는 자동차 대신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집·학교·회사·병원 등 어디나 15분이면 갈 수 있는 도시가 있다?! 미국 월마트의 전 경영자였던 마크 로어는 지난해 9월 “앞으로 40년간 미국 서부 사막에 친환경 미래 신도시를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도시의 목표를 “평등주의 실현”이라고 말하며 “개혁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표했다. 그가 구상하는 신도시의 이름은 ‘텔로사(Telos)’.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Telos: 고유 또는 그 이상의 목적)’에서 따온 말로 일본 도쿄의 청결함, 미국 뉴욕의 다양성, 스웨덴 스톡홀름의 사회적 서비스를 추구한다. 디자인 설계 회사도 확정됐다. 일본의 스마트시티 설계를 받은 바 있는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비야케 잉겔스그룹(BIG·Bjarke Ingels Group)이다. BIG의 설립자 비야케 잉겔스는 “텔로사는 스칸디나비아 문화의 사회적·환경적 특징과 함께 미국의 문화인 자유와 기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언젠가 실현될 이 도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쿠터, 자전거 등 친환경 모빌리티만이 도로 위를 달리게 된다. 사막 한가운데 건립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테지만, 자체 수도 시스템이 물을 만들어 식수 걱정이 없다. 텔로사의 상징이 될 고층 건물 ‘이퀴티즘 타워(Equitism Tower)’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고, 저수지와 수경 재배 농장을 갖춰 식량을 자급할 수 있다.

건설 가능한 사막 지역도 물색 중이다. 미국 네바다, 유타, 아이다호, 애리조나, 텍사스, 애팔래치아 등이 후보지다. 텔로사는 서울 면적(605.2km²)과 비슷한 607km² 규모로 계획되며, 기대 인구는 500만 명이다. 마크 로어는 건립 비용에 4000억 달러를 예상하며 민간 투자, 기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선 2017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역시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한가운데 토지를 8000만 달러를 투자해 사들였다. 빌 게이츠의 투자회사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Cascade Investment)는 자회사인 벨몬트 파트너스(Belmont Partners)를 통해 8만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100km²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계획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도시의 이름은 ‘벨몬트’로 부동산 개발을 주도할 회사의 이름을 따왔다.

IT 거장이 만드는 스마트시티답게 벨몬트에는 최첨단 기술과 초고속 네트워크(5G), 데이터센터 등이 마련된다. 새로운 제조 기술과 분배 모델, 자율주행 교통 수단과 자율 물류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이지만,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어 입지가 좋다는 평이다.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중동의 스마트시티

민간 자본에 의해 제안되는 미국과 달리 중동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는 2005년 수도 도하 북쪽에 있는 위성도시 ‘루사일(Lusail)’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38km²의 면적에 4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카타르는 먼저 루사일에 바다를 매운 인공 매립지 펄(The Pearl)을 만들고 그 위에 아파트 단지를 세웠다.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이 도입된 고속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했다. 카타르 정부는 2022년 현재 도시의 인프라가 95%가량 지어졌으며,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오는 12월 전까지 완성된다고 밝혔다.

루사일의 지하에는 24km 길이의 폐기물 파이프 네트워크가 매장돼 있다. 각 건물과 연결돼 있는 이 파이프 라인 은 인간의 하수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됐다. ‘진공 튜브’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며, 이로써 하루 70t의 운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루사일의 하수와 폐기물은 첨단 처리 과정을 거쳐 재사용된다. 폐기물은 지역 냉각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로 재활용되고, 하수는 재처리돼 조경시설이나 수변시설에 사용된다. 평균기온이 40~50도를 넘나드는 만큼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도 도입됐다. 건물 내부 온도가 적정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AC(Alternating Current: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 장치가 제한돼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이 시스템으로 약 20만t의 CO₂를 절약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네움(NEOM)’은 5000억 달러가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2만6500km² 규모로, 이집트와

요르단에 인접한 사우디 북서부 홍해 해안에 조성된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에너지와 물 그리고 운송 수단. 사우디는 풍력과 태양열만으로 가동되는, 탄소 배출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사막에는 태양광 패널을, 해안선에는 풍력 발전기를 다수 설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용이해진다. 수직농장, 온실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담수화 플랜트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담수화 플랜트는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며, 염수 짜꺼기는 산업용 원료로 재사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집트에서도 도시 스마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집트는 카이로의 도시 혼잡과 증가하는 인구 유입에 대응하고 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카이로 외곽 45km 지점에 최대 650만 명이 거주하게 될 이 도시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공항과 미나렛(이슬람교 사원의 외곽에 설치하는 뿔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동에서 가장 큰 오페라하우스, 엔터테인먼트 지구, 거대한 도시공원, 새로운 의회 및 대통령궁이 계획돼 있다. 이집트 정부는 올 중순까지 30여 개 정부 부처를 새 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면 상승의 위협... 해상 스마트도시로 해결

지구가 매년 더 뜨거워지고 있다. 최고기온 기록 역시 매해 갱신 중이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비단 더위를 겪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해상 스마트도시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여기에서 나왔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세계 주요 대도시가 홍수와 침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2019년 4월 해안 도시와 저지대 국가의 해수면 상승 적응 대책을 모색하고자 미국 뉴욕의 블루테크 기업 오셔널스(Oceanix: 해상도시를 설계·조성하기 위해 2018년 설립)와 네덜란드 건축회사 BIG(Bjarke Ingels Group)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물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오셔널스 시티(Oceanix City)’다. 오셔널스 시티는 최대 3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부유식 모듈이 최소 단위이며 육각형 모양이다. 6개의 육각형 모듈이 모여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형태다. 도시 건축은 현지에서 보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모든 구조물은 폭우, 해일 등 폭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해상도시의 ‘바이오록(Biorock)’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선박의 닻처럼 사용해 고정한다. 특정 전류를 흘려보내 바닷물의 미네랄과 함께 굳히면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는데 이를 바이오록이라고 부른다. 철근 구조물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생태계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셔널스의 공동 설립자인 이타이 마다모메(Itai Madamombe)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오셔널스 시티는 유기적으로 성장, 변형 및 적응하도록 설계됐으며, 무기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속가능한 해상도시의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부산시 북항 연안에 건설될 예정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미국 월마트의 전 경영자 마크 로어가 추진 중인 ‘텔로사(Telos)’ 조감도. 식수와 식량 걱정이 없고, 어디나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2 해상도시 개발 기업 오셔널스가 공개한 오셔널스 시티 조감도. 최대 3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모듈이 최소 단위며, 모듈 6개가 모여 마을(빌리지)을, 마을 6개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는 형태다. 3 오셔널스 시티의 단면도. 해저에 바이오록이 보인다.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을 택한 브랜드 이색 공간 마케팅

문화칼럼 기업의 고객을 만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제품'이 아닌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마케팅이 각광 받고 있는 것. 과감하게 브랜드와 제품을 숨기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브랜드를 스며들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쌓인 긍정적인 경험은 '브랜드 로열티'로 이어져 MZ세대에게 사랑받는 러브마크 기업이 되고 있다. 글·정리=강은비 / 사진=각 브랜드 제공

팝업스토어가 진화하고 있다. 상품 판매를 주력으로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마케팅의 공간으로 MZ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대신 고객과의 소통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MZ세대의 마음을 얻어 입소문이 난 공간들은 오픈된 또는 긴 시간의 웨이팅이 필수일 정도로 일명 '합'한 장소가 됐다. 덕분에 유통업계는 물론 B2B 기업들도 고객들의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자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이색 마케팅으로 팝업스토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로 이미지 변화를 꾀한 매장들 중 아쉽게도 방문 기간이 지난 곳부터 현재 운영 중인 곳까지, SNS에 수많은 인증 사진이 올라오는 색다른 공간을 소개한다.

이누스 **호캉스를 뛰어넘은 나홀로 바스케이션**

욕실 전문 브랜드 이누스가 업계 최초로 도심 속 욕실 휴양지인 '후암별채 이누스'를 오픈했다. 스트레스 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맞춤인 공간이다. 고즈넉한 후암동 분위기를 살려 기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스페이스는 8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뜨끈한 욕탕에 몸을 기대 누워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후암별채 이누스가 특별한 점은 하루에 단 한 명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 무인으로 운영 돼 6시간 동안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곳의 메인 콘셉트는 바스케이션(Bath, Vacation의 합성어). 여느 호텔과는 다르게 큰 편백나무 욕조가 있는 욕실이 메인 공간이다. 인테리어도 색다르다. 어두운 동굴에서 즐기는 야외 스페이스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편백나무 욕조 주변에 석재 질감의 타일로 마감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자연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냈다. 편백나무 욕조 주변에 설치된 조경을 통해 삼림욕하는 기분까지 낼 수 있다.

갯생* 사는 김네넵 대리의 갯생기획실

가상인물 Z세대 직장인 '김네넵'의 일상을 보여주는 GS리테일의 '갯생기획실' 역시 MZ세대에게 통(通)한 마케팅으로 입소문을 탔다. 평소 편의점이라면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에 반해 GS리테일이 기획한 GS편의점은 상품 판매에서 더 나아가 방문한 고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했다. 그 시작이 바로 갯생기획실이 기획한 '갯생기획실'이다.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곳은 '말로만 갯생을 살고 있는 Z세대 직장인의 하루'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어 직장인의 찐 공감을 불러냈다.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법한 사무실의 책상과 탕비실의 풍경, 퇴근 후 들른 상점과 개인 방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자신과 비슷한 하루를 사는 'MZ 직장인'을 몰래 지켜본 기분까지 들게 한다. 갯생기획실에는 김네넵 대리가 키우는 무표정한 티벳여우 '무무' 캐릭터 굿즈와 그간 GS리테일이 타브랜드와 협업해 출시했던 상품들, 즉석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공간까지 있어 더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갯생은 'GOD'과 '인생'을 뜻하는 신조어로 부지런한 삶을 의미.



시몬스 **침대 빼고 다 있는 굿즈 맛집 그로서리 스토어**

침대가 나오지 않는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꾀한 시몬스 침대가 2020년에 오픈했던 팝업스토어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는 시몬스를 향한 브랜드 반열에 올라가게 해준 신호탄이었다. 당시 팝업스토어에는 시몬스의 침대 제품을 홍보하는 대신 작업복 및 안전모와 같은 200여 종의 문구와 공구 잡화류 등을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다'는 시몬스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는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로 이어졌다. 부산을 시작으로 청담에 문을 연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는 식료품점 콘셉트로 삼겹살 모양의 수세미, 버거 모양의 포스트잇 등 1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며 방문객에게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다. 굿즈를 판매하는 1층 외에도 불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 2층에서는 부산 해리단길을 대표하는 로컬 '버거샵'의 수제버거를 맛볼 수 있으며, 바로 옆 공간엔 시몬스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몬스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다. 3층에서는 시몬스의 '오들리 세티스파이닝 비디오' 디지털 아트 전시가 준비돼 있어 '땀' 때리며 잠깐의 힐링을 즐길 수 있다.

휴롬 **건강한 비건 브런치 카페 부업**

빈티지한 유럽 감성의 예쁜 외관과 건강하고 맛있는 브런치로 방문하는 이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던 휴롬의 첫 팝업스토어 '부업 by 휴롬'이 지난 6월 19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MZ세대에게 '건강'이라는 가치와 '휴롬' 브랜드를 알리고자 한 달여간 비건 브런치 카페를 오픈했던 것인데, 메뉴판을 제외하면 휴롬의 이름이나 제품을 찾아볼 수 없어 오히려 기업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브랜드 스토어인 것을 몰랐던 방문객은 비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상 카페로 착각했을 정도였다고.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메뉴는 휴롬 제품으로 만든 후무스 팔레트와 원두를 쓰지 않고 커피 맛을 낸 치커리 커피.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했던 고객들은 착즙 후 남은 퓨레로 만든 반려동물 간식까지 준비돼 있어 휴롬의 '반려 가족' 마케팅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두겹상회 **'미성년자 출입금지' 어른이 문방구 두겹상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성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하이트진로의 '진로 소주'가 리뉴얼되며 귀여운 두꺼비 마스크트로 변신했다. 본격적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있는 인기의 주인공 두꺼비 캐릭터로 꾸며진 '두겹상회' 팝업스토어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오픈한 마케팅 공간이다. 2년째 전국을 순회하고 인천에 상륙해 오는 7월까지 오픈하는 두겹상회에서는 짧은 팔다리와 볼록 튀어나온 뺨살이 귀여운 두꺼비 캐릭터의 흡소맥잔을 비롯한 다양한 굿즈가 판매 중이다. 지역 맞춤형 굿즈 및 지역별로 달라지는 두겹상회의 인테리어도 볼거리 중 하나다. 이번에 오픈한 인천 두겹상회는 공항 콘셉트로 꾸며져 보딩패스 방명록과 두겹여권, 이정표 등 공항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두겹 포토부스와 쏘맥자켓 증 발급 스폿 역시 빠지지 않고 들러야 하는 인기 장소다.





칸이 반한 배우 배두나 빈틈없는 연기로 세상을 사로잡다



1, 2 영화 <다음 소희>에서 배두나는 콜센터 현장실습 여고생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역을 맡았다. 3, 4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동시 초청된 <다음 소희>와 <브로커>.

피플 인사이드 지난달 폐막한 칸 국제영화제에 배우 배두나는 영화 <다음 소희>와 <브로커>로 동시 초청됐다. 각각 정주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함께한 두 번째 작품으로 두 영화에서 그는 사회 문제를 파고드는 형사를 연기했다. 글=나원정 <중앙일보> 기자 / 사진=트윈플러스파트너스㈜

올해 칸 영화제에는 공식경쟁 부문의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비평가주간 부문 폐막작 <다음 소희>(감독 정주리) 등 배두나가 형사 역을 맡은 영화 2편이 동시 초청됐다. 그러나 미국 영화 <레벨 문> 촬영차 현지에서 머무느라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그는 지난 8일, <브로커> 개봉 당일 한국 취재진과 화상으로 만났다.

그는 <브로커>로 한국 최초 남자 배우상을 받은 송강호에 대해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나라 최고 배우”라며 “내 일처럼 기쁘다”며 축하를 건넸다.

“속보 뜨자마자 문자 드렸는데 답장은 없어서.. (웃음) 축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제가 외국에 있어서 전달이 안 된 건지 모르지만 너무 대단하죠. 저는 오빠(송강호)랑 네 작품(<괴물> <마약왕> 등)을 같이 했잖아요. (작품을) 가장 많이 한 여배우라더군요. <복수는 나의 것>(2002)부터 옆에서 봐온 선배고, 얼마나 영혼을 다 바쳐서 영화를 한 편 한 편 만들어 내는지 봤으니까요.”

칸에서 빛난 존재 배두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해요”

“<브로커>는 제가 한국에서 제일 늦게 볼 것 같다”는 그는 두 영화 모두 아직 완성분을 못 봤다고 했다.

“일단 배우에겐 촬영이 최우선이지만 이번 칸은 아쉬웠어요. <브로커>와 <다음 소희>가 같이 초청

된, 저에게는 특별한 해였으니까요. 정말 기뻐했는데 (칸에 참석할) 그 이들이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전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을 때도 미국 작품 <센스8>을 찍느라 못 갔는데, 또 못 가게 됐네요.”

함께하지 못했어도 칸 영화제 내내 배두나의 존재감은 컸다. 두 초청작에서의 역할이 기성세대로서 사회적 고민을 거둬주는 형사 캐릭터였던 점이 돋보였다. <브로커>에선 아기의 불법매매 일당을 추적하는 여성 청소년과 경찰 수진 역을 맡아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영화 주제를 강조했다. <다음 소희>에선 콜센터 현장실습 여고생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됐다.

배두나는 정주리 감독과 가정 학대 피해 아동 이야기 를 그린 <도희야>에 이어 8년 만에 뭉쳤다. 고레에다 감독과도 일본 영화 <공기인형> 주연 이후 13년 만에 재회했다. 이전 작품을 통해 배두나를 지켜본 감독들이 그를 떠올리며 직접 각본을 썼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배우이자 인간 ‘배두나’가 투영된 역할이냐고 묻자 그는 “많이 투영됐을 거라 본다”고 했다.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고르는 작품을 보면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많이 끌리고요.”

특히 정주리 감독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이 대본을 안 고를 수 없게 쓴다”며 “제가 특히 아동·청소년 문제에 많이 분노하는데, 그런 대본을 준다”고 말했다.

단편 영화 <페르소나>(2019)로 호흡을 맞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브로커>의 미혼모 역 제안을 상의해오자 배두나는 “무조건 해야죠”라는 여섯 글자 문자로 답했다고 한다. “<브로커>는 고레에다 감독님이어서 선택한 게 가장 크



다”며 “2016년 트리트먼트 한 장과 함께 구두로 제안을 주셨는데, 감독님이 하는 건 한 장면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고레에다 감독은 “배두나 배우의 연기는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며 “빈틈없고 버릴 게 없는 연기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터득한 노하우가 성장의 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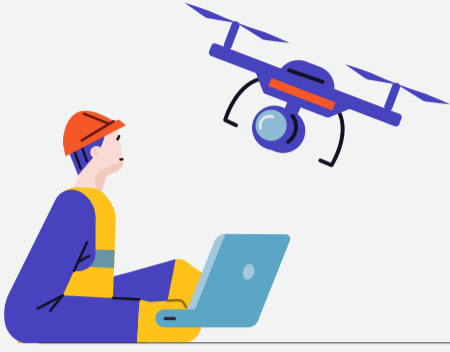
패션모델로 출발한 배두나는 1999년 하이틴 드라마 <학교>(KBS2)의 방황하는 청춘, 영화 <링>의 한국판 귀신 역할로 연기에 데뷔했다. 봉준호 감독과 함께한 <플란다스의 개>(2000), 천만 영화 <괴물>(2006) 등 그간 영화 20여 편에 출연했고, 그중 7편이 일본 이와이 슌지, 미국 워쇼스키 자매 등 외국 감독 작품이다.

고레에다 감독과 두 번째로 함께한 <브로커> 현장에선 그간 외국 작품을 하며 쌓은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배두나는 고레에다 감독이 직접 쓴 일본어 대본을 요청해 한국말 대본과 뉘앙스를 비교하며 연기했다.

“한국어 대본에서 답을 잘 못 잡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본어 원본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일본어 원본에는 있었어요. (고레에다 감독이 직접 적은) 말줄임표가.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가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전형적인 대사를 치지’ 생각될 때, 일본어 대사를 보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되니까 전형적으로 안 하게 돼요. 외국어를 조금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전부터 배두나는 글로벌 무대를 공략해왔다. 차기작으로 한국 영화 <바 이리스>, 미국 영화 <레벨 문>이 기다린다. <레벨 문>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 <300> <저스티스 리그> 등으로 유명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로, 새로운 도전이다.

“20대를 지나면서 역할보다 작품을 보고 고르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게 됩니다.”



현대건설의 똑똑한 건설 기술

현대건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전한 현장과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 기술부터 원전까지, 우리 회사의 남다른 건설 행보를 퀴즈로 알아보자. 글·정리=강은비

성명	
사원번호	

OX 퀴즈

- 싱가포르 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 현장에서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혁신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실레인(Silane) 무인 자동화 도포 장비' 기술은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위해 도포하는 실레인 작업을 무인 자동화한 것이다.
- 김포~과주 고속국도 현장에서는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해 터널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본사 및 사무실과 원격 화상 회의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안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에 설치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국내 최초다.
-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3D현장관리 플랫폼'은 무인 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현장관리를 가능케 한 플랫폼이다.

객관식

- TBM 운전 시 ICT기술을 접목해 굴착 데이터와 지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운전 방법을 제시한 우리 회사의 자체 개발 기술은?
① TADAS ② SABAS ③ TABAS ④ HAEBAS
- 기준과는 다른 고성능 완충재를 포함한 바닥구조시스템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기술은?
① H사일러스 홈 ② H사이먼스 홈 ③ H사일런트 홈 ④ H사이렌트 홈
- 건설업계 최초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검측시스템이다. 검측계획 수립부터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하자관리까지 가능한 이 시스템은?
① E-포켓 ② M-포켓 ③ Q-포켓 ④ X-포켓
- 국내 원자력발전소 시공 최대 실적을 보유한 우리 회사가 새롭게 진출한 소형 모듈원전(SMR) 사업은 기존 대형 원전(1000MW) 대비 용량을 300MW 이하로 줄여 폐기물 배출이 적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원전이다. SMR은 무엇의 약자인가?
① Small Modular Reactor ② Simple Modular Reactor ③ Strong Modular Reactor ④ Smart Modular Reactor
-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부평 미군반환기지 '캠프마켓'에서 대규모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열분 방식의 열처리 공법(IPTD)과 열산화 공정(Thermal Oxidation)을 사용해 이것을 토양에서 분리한 후 정화한 것인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 화학물은?
① 옥시크린 ② 다이옥신 ③ 라돈 ④ 헬리코박터균

주관식 ※QR코드 퀴즈!

- 건설업계 최초로 IoT센서를 활용해 현장 안전을 스마트하게 관리한 시스템이다. '근로자 위치 확인, 장비 협착 방지,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가스농도 감지, 풍속 감지, 흠막이 가시설 붕괴 방지' 총 6가지 안전사고 사전예방 기술을 내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힌트: HiOO)
- 광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이 기술은 전 세계 최초로 우리 회사가 개발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세대용 환기 시스템이다. (힌트: H커리오)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1. 75주년
2. 다이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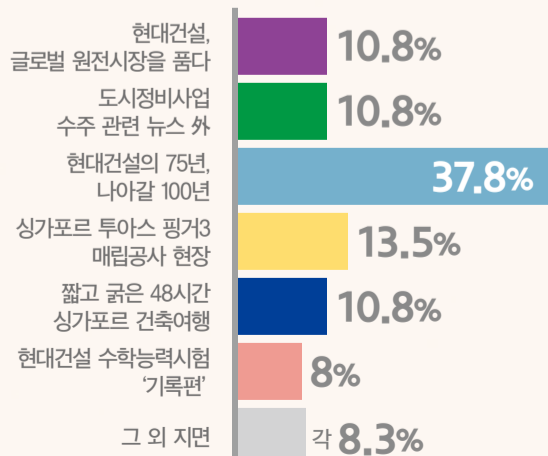


사보신문 애독자 코너

Reader's Letter

현대건설의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Q 독자의 선택! 414호 원픽 기사는?



Q 사보신문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임직원이 주인공인 기사가 좋았습니다. 퇴근 후 직원들의 부캐도 궁금하네요.

해외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는 직원들의 소식과 해외 현장 소식도 보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여행과 현대건설 프로젝트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후속편도 기대됩니다.

주관식 퀴즈 참여하기



상단 주관식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을 추천해 디지털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스캔
② 독자 의견 & 퀴즈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7월 22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디지털 세트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展

4.8~8.28 (매주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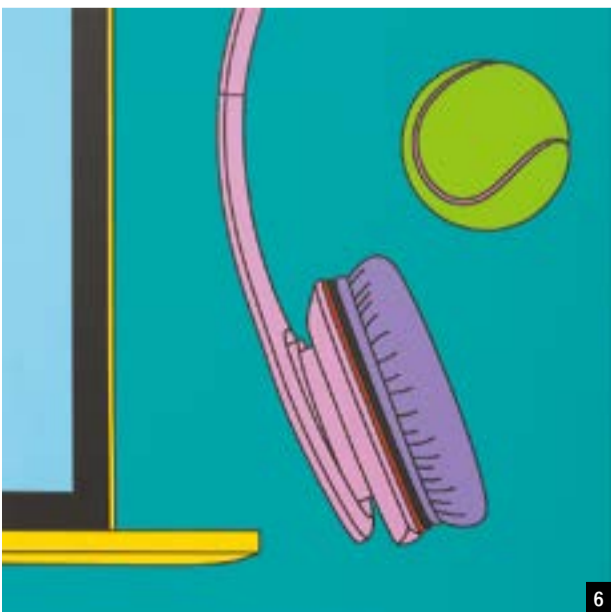
3



4



5



6



7

3 Untitled (x-box control), 2014 ©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of Gagosian, 4 Zoom, 2020 ©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of Gagosian, 5 UNC Les Meninas II, 2001 ©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Gagosian, 6 Untitled (with tennis ball), 2020 ©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of Gagosian, 7 UNC Cassette, 2002 ©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Gagosian.



2

1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의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시장 모습 ©김연희, 2 Private Dancer, 1984 ©Michael Craig-Martin, Courtesy Gagosian.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F 1, 2 전시실

“우리가 흔히 여기는 일상의 오브제들이 실제로는 가장 특별한 것이다.” 평범한 것에서 영감을 얻는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개념 미술의 선구자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전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원화전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예술 인생을 총망라한 회고전으로, 20대 당시의 작품부터 80대에 그린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개념 미술의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 <참나무> (An Oak Tree, 1973)가 아시아 최초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초 기작과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2022년 최신작까지 회화·설치·디지털 미디어·드로잉·판화 등 총 150여 점의 원화를 볼 수 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은 우리 생활 깊숙이 깃들어 있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자 예술적 음유시인으로서 평범한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점에서 특별하다. 6개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된 전시장은 ‘Exploration: 탐구’ ‘Language: 언어’ ‘Ordinariness: 보통’ ‘Play: 놀이’ ‘Fragment: 경계’ ‘Combination: 결합’으로 꾸며졌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일종의 기록을 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그가 예술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부터 글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작품과 일상을 보는 낯선 시선까지.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철학을 작품 감성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